

그리스도인 06. 죄인들의 삶은 어떠한가?

Christian 06. What's the life of a sinner like?

죄인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죄인들에게는 범법, 죄, 불법이 있다.

자기의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²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의 영 안에는 간사함이 없도다.(시 32:1-2)

• **범법(transgression)**은 어떤 경계선을 범한다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범법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께서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금하셨는데 그 금하신 것으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범법이다. 죄인들에게는 이런 범법이 나타난다.

• **죄(sin)**는 목표나 표적을 빗나갔다는 뜻으로 과녁을 맞히지 못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지키지 못해 실패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을 정하셨다.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것은 죄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이는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요일 3:4)

• **불법(iniquity)**은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해 비뚤어지고 일그러진 상태가 되었다. 거짓된 것에 매료되고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따라간다. 더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내지 못하며 망가져 건전하지 않은 모습을 말한다.

2. 죄인들에게는 불의가 있다.

이런 죄인들이 자기들의 범법과 죄, 불법을 가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모든 시도는 다 불의(unrighteousness)이다. 종교, 철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나름의 방법으로 죄인을 달래거나 위로하거나 죄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모든 것들은 불의이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불의이다.

3. 죄인들은 죽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 죄인이었다. 이런 죄인들은 죽어 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엡 2:1)

여기서 죽은 것은 육체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 다만 그들에게서 죽은 것은 영이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며 그분의 사랑에 반응할 수도 없는 영적 상태를 말한다.

4. 죄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영권 밖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느니라. (엡 2:12)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는 말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롬 8:1)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이다.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말이다.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정죄함이 있다면 심판이 따라온다. 죽음과 함께 죄들에 대해 형벌을 당해야 한다.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성령님을 따라 걷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롬 8:5). 육신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롬 8:8). 거룩한 생활이 불가하다.

죄인들은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없고 예언자들과도 상관없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성전과도 상관없는 자들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낯선 자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다(엡 2:11-12). 하나님 밖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은 큰 은혜이다.

그러나 한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엡 2:13)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